

기본급 99,000원 인상! 산업전환협약 쟁취!
노동자생존권 보장! 산재사망 유가족 특별채용 쟁취!



2021.04.30(금)

지부교섭 속보

02호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김정태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사용자 의지만 있다면 올해 교섭 쉽게 간다!



2차 교섭에서 요구안 설명 진행

2차 지부교섭이 4/29(목) 14시 30분 보쉬에서 열렸다. 2차 교섭에서는 지부 요구안 4가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측 교섭위원들은 다음 교섭 때 질의응답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부교섭 전, 점심시간에는 지부 교섭위원들이 중식 선전전을 펼쳤다. 지부 교섭위원들은 사업장을 순회하며 교섭을 진행할 때마 해당 사업장에서 중식 선전전을 진행하며 조합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지부 교섭위원들은 구조조정 저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내용을 담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조합원들을 만났다.

올해 요구안 단출하다. 빠르게 타결하자!

올해 지부요구안은 4가지다. ① 임금인상, ② 산업전환협약, ③ 노동자 생존권 보장, ④ 산재사망

자 유가족 우선채용.

임금인상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예년보다 적은 9만9천원 인상을 요구한다. 산업전환협약은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이다. 노동자 생존권 보장은 일방적 구조조정을 금지하고, 도산이나 파산하는 사업장이 발생하면 다른 사업장의 신규채용 때 사전에 통보하고 노조 추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역 노동자의 일자리 상생을 위한 조치이다. 산재사망 유가족 우선채용은 대법원이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다시 예전 단협을 회복해서 산재사망 노동자 가족의 생계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이다.

차기 교섭 : 5/13(목) 14시 30분, 대한이연

2차 교섭 속기록

지부 요구안 단출하다. 교섭 빠르게 하자.

사 : 작년 이맘때도 교섭으로 회사를 방문하셨을 때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1년 지난 오늘도 동일한 상황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 올해 지부 요구안 중에서 특히 산업전환에 대해서 많은 부분 함께 고민하자는 의제를 주셨는데 모든 회사에 깊이 연관돼있다. 모두 슬기롭게 헤쳐나가자.

노 : 지부장이 다우케미칼실리콘지회 상견례가 있어서 조금 늦는다. 수석부지부장이 대신 모두발언하겠다. 지난주 지부교섭 시작하고 각 지회별 교섭도 시작됐다. 올해는 너무 길게 가지 않았으면 한다. 산업전환 얘기하셨는데, 부품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고 최대한 함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21년 지부교섭 요구안 설명하겠다. 보면 알겠지만 단출하다. 지부가 독자적으로 요구한 것은 노동자 생존권 보장 하나밖에 없다. 산업전환 협약은 통일요구안으로 전체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요구한다.

코로나19로 노사 모두 힘든 상황에서 노조가 임금요구안을 만들면서 토론을 많이 했다. 예년보다 적은 9만9천원 인상을 요구한다. 기본급 인상 포함해 각종 임금인상에 따른 월평균 고정급 인상액을 병기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있다. 어떻게 보면 사측에 유리한 내용일 수도 있다. 그간 금속노조는 기본급 동결, 저하는 불승인 사항이었다. 임금요구안 논의를 통해 기본급만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고정급까지 하향했다고 이해하면 된다.

자동차 산업을 필두로 산업전환이 예측보다 빠르게 가고 있다. 급하게라도 노사가 공히 산업전환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인 실용적 내용까지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정부와 사용자 주도로 진행되는 산업전환 논의에 노동이 1주체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노동이 배제되어 노동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산업전환 시기 공동결정할 의제로 ①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 ② 교육·훈련, ③ 노동안전 및 인권보호, ④ 기후위기 대응, ⑤ 공정거래를 제시하고 있다. 노사 공동결정 체계를 만들어서 2022년에 진행하자는 내용이다.

노동자 생존권 보장은 지부의 독자적 요구다. 임금동결, 삭감, 인원 감축을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기존에도 합의한 바 있다. 코로나 위기를 빌미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확인하는 취지다. 또 지역에서 도산, 파산하는 사업장이 발생하면 지역 노동자 상생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다. 신규채용을 사전에 통보하고 노조가 추천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추천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말자는 것이다.

산재사망 유가족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관련 단협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다시 예전 단협을 원상회복하는 과정이다. 업무상 사망하거나 장애가 심하면 유가족, 당사자의 요청으로 부양가족 중 1인을 우선 채용하자는 것이다.

사 : 질문은 다음 교섭에서 하겠다. 실무에서 협의했는데 5월 6일 사정이 있어 교섭은 진행하지 않고 교섭차수는 인정하는 것으로 하자. 시간할애는 인정하겠다.